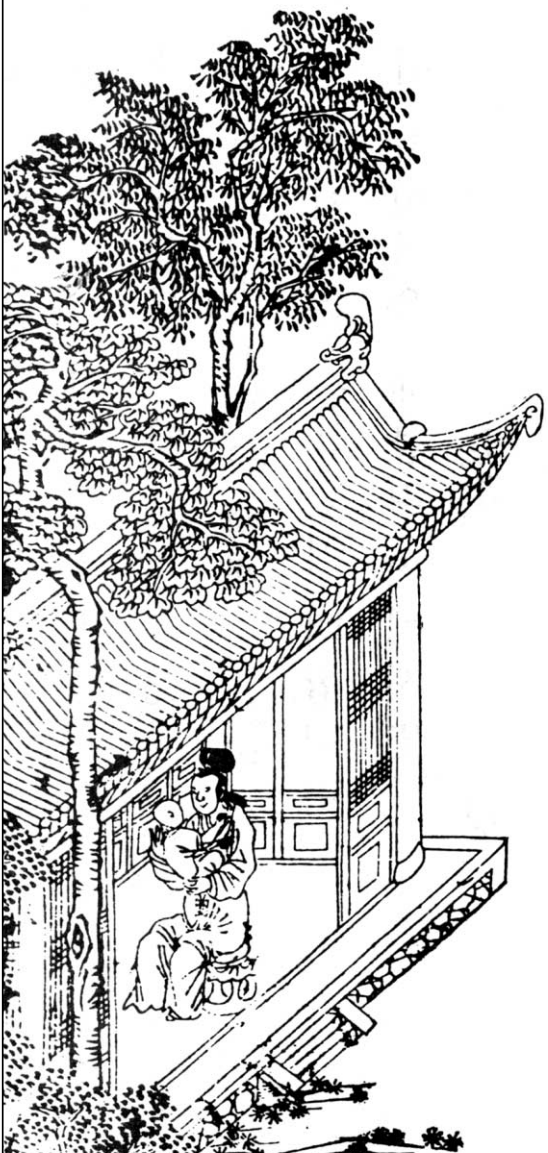


# 효의 보고 듣고 만지자



1월 28일 개관하는 용주사 효행박물관을 미리 찾은 새싹가족들. <부모은중경>에 스민 불심과 효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 미리 가 본 용주사 효행박물관

박물관에 가면 유형의 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녹아있는 무형의 사상과 가치를 읽어내는 것은 철저히 관람자의 몫이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갖고 설립된 테마박물관의 '유물과 그 정신을 잇는 작업'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화성 용주사(주지 정택)는 '효'를 주제로 한 70여 평 규모의 '효행박물관(관장 보승)'을 1월 28일 개관한다. 정조의 효심으로 건립된 용주사의 역사적 특성과 그 안에 스민 정신을 관람자들에게 전시유물로서 오롯이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효심(孝心)'을 '불심(佛心)'과 접목해 '불교적인 효'를 제시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그렇다면, 그 박물관 안에는 어떤 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대표적인 전시유물은 역시 '불설부모은중경판'이다. <불설부모은중경>은 부처님이 제자 아난에게 부모님의 은혜를 설하는 내용을 담은 경전으로, 자비정신의 바탕이 되는 효심을 강조한 것이다. 경전내용과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변상도가 함께 제작되는 것이 통례라 다양한 양식의 판본이

밝혔다. 또한 '부모에게는 길러 주신 은혜가 있으니 공경으로써 공양하면 이것이 바로 보은의 길'이라며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도 정조 관련 왕실 유물도 진열대에 오른다. 사도세자와 그의 비 혜경궁 홍씨의 위패를 봉안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목조감실(81x223cm)', 사도세자의 묘소에 성묘하며 거행된 행사를 그린 '화성능행도(華城陵行圖)', 정조가 하사한 왕실 금동·청동 향로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국보 제120호로 지정된 범종, 보물 제1095호로 지정된 범종사용주사말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등 용주사와 용주사 말사에서 모은 총50여 점의 유물들을 마주할 수 있다.



용주사 효행박물관장 보승 스님.

## 정조가 효심으로 제작한 '불설부모은중경판' 눈길 28일 개관... 입체적 시스템 운영으로 교육 효과 기대

전국 곳곳에 남아있지만, 용주사 경관의 경우 정조가 효심으로 직접 제작해 하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조는 보경당 사설 스님으로부터 <부모은중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뒤죽에 갇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마음으로 경판을 만들었다. 특히 변상도의 경우 다른 판본이 이야기의 배경만 간략히 표현한 것과는 달리, 섬세하고 사실적인 표현이 돋보인다. 누구의 작품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홍도 작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조가 자신의 불심과 효심을 바탕으로 직접 지은 개승 '어제 화산용주사불불기복계(御製花山龍珠寺奉佛氣服偈)'의 원본과 목판도 눈길을 끈다. 정조는 "젊은 현몽원의 재공(齎工)으로 건립했습니다. 소자(正祖)는 판본 사천 법문의 경의(經義)를 배껴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삼가(三業)를 지어 삼업(三業)의 공양을 본받아 은혜에 보답하는 복전을 짓습니다"라며 기복계를 짓는 취지를

이 같은 전시 유물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다. 아이들이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각·청각적 효과를 동원한 '아이글래스 시스템', 용주사 사찰문화재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담아 보여주는 '매직비전', 대웅보전의 삼세불 후불탱화 와이드 칼라' 등이 갖춰져 있다. 또한 탁본 실습공간을 마련해 <부모은중경> 인경 실습을 비롯, 범종문양 등 아름다운 문양을 탁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용주사 효행박물관장 보승 스님은 "박물관은 유물을 보호·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물관람을 통한 '교육'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며 "문화재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효심과 불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사회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031)234-0040

글=강신재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사찰 전체가 박물관으로

### 서울 안양암... 개관 기념 유물전도

1889년 정토도량으로 창건된 곳. 조선말기 양식으로 조성된 전각, 불화, 불상, 공예품 등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는 그곳.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소재 안양암이 사찰박물관으로 1월 19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전국 주요사찰에서 성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찰 전체를 박물관으로 꾸며 선보이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총 1157평의 안양암에는 석감마애관음보살상(제122호), 대웅전 봉안 아미타 후불도(제185호), 감로도(제186호), 팔상도(제187호) 등 15점의 서울시유형문화재와 전오백불상을 비롯한 1500여점의 서울시문화재자료가 있다.

이 외에도 사찰부지 전체와 7개 전각도 서울시유형문화재 최중심의 예고를 받아 사적 가치가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안양암이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통사찰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불교미술박물관 관대성 관장의 원력이 컸다. 권 관장은 1997년 개발위기에 몰린 안양암을 매입한 후 각종 송사에 시달리면서도 원형 보존을 위해 노력했다. 권 관장은 종중에서 물려받은 땅과 개인사업으로 번 돈

## 700여점 일반에 첫 공개 한국불교미술관에서 19일부터

으로 93년 원서동에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불향(佛香)을 피워 올리던 안양암을 일

반에 공개하기로 한 것을 기념해 특별전도 마련했다. '살아있는 사찰박물관' 이자 '한국불교미술박물관(관장 권대성) 별관'인 안양암의 유물들은 서울 원서동 한국불교미술관 본관에서 역시 19일부터 공개된다.

본관 기획전시실 개관을 기념해 '안양암에 담긴 증생의 염원과 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2점의 괘불(掛佛)과 영혼을 울려 증생을 구제하고자 했던 법음구(法音具), 화려한 색으로 호법성종(護法聖衆)의 위엄을 표현한 각종 시련의식구(侍禱儀式具) 등이 선보인다.

이 외에도 현재에서 내세까지 이어지는 증생들의 바람을 담은 각종 다리니와 부처,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증생을 제도하는 경관 및 서적, 안양암내에서도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었던 호계철, 승적명부 등 안양암의 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사적기류(事蹟記類)를 포함해 총 700여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2004년 5월 안양암이 한국불교미술박물관 별관 사찰박물관으로 서울시청에 정식 등록된 후, 같은 해 12월 약 1600여점의 소장 유물을 수록한 도록을 발간하면서 추진됐다.

전시를 준비한 권 관장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치닫는 삶 속에서 현세를 잘 마감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상을 꿈꾸는 증생들의 간절한 염원과 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2)766-6000, www.buddhismuseum.co.kr

강신재 기자



사찰 전체가 박물관으로 꾸며진 서울 창신동 '안양암' 전경.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 730-0705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자	교통	일정
1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신사 순례 및 대련 관광/정주로 이동
2일	전용버스	개봉-용정, 철담, 포공사 관광
3일	전용버스	소림사, 탐림, 백마사 순례
4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5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팀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중국의 6대조를 모신 중국의 6대조를 모신 순례 5일**

여행경비: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자	교통	일정
1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해선사, 용문사 순례
3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팀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 (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악불사, 담겨사, 옥악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전불동, 영암사, 잠산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팀 불포함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차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차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참옷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 山寺 참옷 조청 · 약도라지 조청

- ◆ 참옷
  - 어혈, 노폐물, 피로독소 애소
  - 물의 냉기 냉증의 개선
  - 오장육부 기능의 정상화
  - 항암, 원기회복에 기여
- ◆ 약도라지
  - 기관지, 천식, 기침의 완화
  - 호흡기 질환 개선
  - 폐기능 강화
  - 거담, 배농작용에 기여

- 산寺 참옷 조청은 전래비법으로 참옷나무의 유독성은 제거하고 좋은 약성만을 추출, 농축하였으므로 누가 먹어도 맛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산寺 참옷 조청은 국내산 무공해 원료만을 사용하여 7일 동안의 정성으로 겨우 한 술 고아지는 극소량의 명품조청입니다.

문의 및 주문처 : 054-372-3166 (보갑사)

최 고 의 선 물

2005年新/製/品

## 스님用 滿行靴

본 제품은 수제화로 특수 제작되었습니다.

- 상표등록번호 제 2956호
- 의장등록번호 제 35872호

- 색상: 회색
- 규격: 215~290(mm)
- 보급가 ₩ 60,000
- 불자용 색상은 보라색, 흑색
- 만행화(滿行靴)달신 특징

- ① 발, 볼, 등 감당 스님 치수에 맞도록 수제화로 제작하였습니다.
- ② 겨울 동절기에 냉기를 차단하는 특수 바닥창 논스립 우레탄 소재.
- ③ 외부소재 극세사 천연 방수 원단으로 내부에는 특수털로 내장 제작.

\* 스님, 도반님들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

만행화 www.manhaenghwa.co.kr

주문번호 TEL : (02) 927-5715 H.P : 011-9000-5715

농협 063-12-250427 예금주: 구자인